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		배포일시	2021. 8. 5.(목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	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버스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광민, 사무관 서지훈, 주무관 이준호 • ☎ (044) 201-5067, 5071		
	경기도 버스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호원, 팀장 김정권, 주무관 최승철 • ☎ (031) 8030-3771, 3774		
보 도 일 시		2021년 8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.. “시원한 출근길을 부탁해”

- 경기도 31개 시·군의 하절기 폭염 대비 버스 서비스 실태점검 실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, 이하 국토부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백승근, 이하 대광위)는 6개 광역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(6.22) 및 경기도 등 지자체 간담회(6.30)를 개최하고, 7월 한 달간 실태점검을 거쳐 하절기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.
 - 이는 올여름 폭염일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폭염 등으로 인한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.
- 국토부와 경기도가 하절기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동으로 폭염 대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실내온도·차량점검·정류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① (실내온도) 각 기초자치단체는 실내온도지침을 마련하고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이러한 실내온도 관련 조치들을 더욱 강화한다.
 - * (대표사례) 고양시는 국제철도규격 UIC-533(차내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의 편차가 3℃를 넘지 않도록 규정)을 준용하여 24~27℃를 유지하도록 안내 중
 - 최근 상층부의 높은 실내온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경기도 2층 버스와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실내온도 자체매뉴얼을 정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.

② (차량점검)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인한 폭발사고*를 예방하기 위하여 CNG 10% 감압충전 및 용기 안전점검**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, 사고예방을 위한 재생타이어***사용여부 점검을 확대한다.

- * '10.8월 행당동에서 운행 중 CNG용기 폭발(17명 중경상), '19.5월 청주시에서 운행 중 재생타이어 폭발(17명 중경상) 등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인한 폭발사고 발생
- ** 국토부는 매년 하절기 사고예방을 위하여 CNG감압충전, 안전점검 등의 협조 요청
- ***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생타이어 사용을 규제

③ (정류소 등) 여름철 승객들의 불편이 집중되는 광역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에어컨 등이 설치된 밀폐형 정류소, 미세안개 분사로 정류소 온도를 저감시키는 쿨링포그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,

- 아울러, 송풍기·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지붕이 없는 정류소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무더위 속 광역버스 대기여건을 적극 개선한다.

- * 밀폐형 정류소 37개소, 쿨링포그 설비 24개소, 송풍기 441개소, 에어커튼 40개소 등이 설치되었으며, 향후 밀폐형 정류소 9개소, 송풍기 17개소, 에어커튼 2개소 등 지속 확대 예정

□ 경기도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은 “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내 냉방실태 점검, 안전 점검, 정류소 시설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“간담회를 통해 광역버스 업계에도 시민들이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차간격 및 인가대수 준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”면서,

○ “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될 광역버스 노선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므로,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서지훈 사무관, 이준호 주무관(☎044-201-5067, 50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실내온도 관련 우수사례 >

- ▶ 고양시에서 출발하여 광화문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M7106은 차량에 따라 실내 온도가 크게 차이나 지나치게 춥거나 더운 경우가 많았으나, 고양시가 차내 적정온도(24~27℃) 및 습도(60%) 지침을 내린 이후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출·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.
- ▶ 양평군에서 출발하여 잠실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G9311의 경우 차고지 인근에 위치한 ‘용문터미널’ 정류소에서 탑승할 시 에어컨이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에 실내온도가 30도를 넘는 경우가 많았으나, 양평군에서 “출발 시 에어컨을 3단 이상으로 가동하고, 1시간 경과 후 1단으로 변경”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후에는 ‘용문터미널’에서 탑승해도 시원한 환경에서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.

< 차량점검 관련 우수사례 >

- ▶ 시흥시는 고온에서 폭발가능성이 높은 재생타이어의 사용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. 또한, 타 시·도에서 발생했던 CNG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안전점검표에 따라 업체에서 CNG내압용기를 자체점검 하도록 하고, 부적합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특별점검반과 함께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.
- ▶ 안산시는 냉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핀, 냉매가스 및 각종 호스 등에 에어컨을 수시로 점검하고, 쾌적한 차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체가 에어컨 필터의 교체 빈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.

< 정류소 등 관련 우수사례 >

- ▶ 어린이·청소년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‘경기과천교육도서관’ 앞 정류소에서 광역버스 7007-1번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하는데, 특히 여름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. 이에 과천시는 냉난방장치·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밀폐형 정류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.
 - * 과천시는 7.9억원(경기도 1.05억원, 과천시 6.85억원)을 들여 ‘과천주공2·3단지’, ‘KT과천지사’, ‘정부과천청사역’ 등 총 8개소에 밀폐형 버스정류소를 설치
- ▶ 군포시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버스정류소 6개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기온 26℃ 이상, 습도 80% 이하가 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여름철 정류소 주변 온도를 3~8℃ 가량 저감시키고 있다.
 - 특히, 금정역·군포역·대야미역 등 주요 도시철도 역사 정류소에 쿨링포그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도시철도와 광역버스 간 쾌적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* 군포시는 경기도비 1.5억원을 들여 금정역, 군포역, 대야미역, 군포시청 맞은편, 군포평생학원, 용호고 버스정류장 등 총 6개소에 쿨링포그 설비를 설치